

2013년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보도자료

○ 총 건 : 16건

번호	언론사명	보도명	보도일자
1	서울일보	경북, 건강한 삶의 질 높이기 앞장 -지역사회 통계활용 건강문제 파악...	'14.10.7
2	영남일보	경북도 남자 10명 중 4명 흡연 만19세 이상 건강조사 결과 30대 男 흡연율 56.9% 최고 걷기 실천율 안전띠 착용률 전국 평균 크게 밑돌아	'14.10.6 (월)
3	대구일보	30대 흡연율 높고 걷기 실천율 낮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북도민 “걷기 싫어해”-	"
4	경상매일	30대 이상 흡연율, 여전히 높다 -경북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안전벨트 착용율은 전국 평균보다 ↓-	"
5	경북신문	30-40대 경북도민, 건강에 가장 무심 - 道,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	"
6	경북도민일보	경북 “걷기 실천율·안전벨트 착용률” 낮아 - 지난해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전국 평균 밑돌아 -	"
7	대경일보	우리지역 건강수준, 어디까지 왔을까?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수준 인지도 5년간 ↓-	"
8	대구광역일보	경북지역 30대 이상 흡연율 여전히 높아 -전국 평균과 비슷... 20대 다소 감소추세-	"
9	경안일보	30대 이상 흡연율, 여전히 높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발표... 금연정책 필요- - 경북지역 흡연율 23.9%, 30대가 31.3%로 최고-	"
10	연합뉴스	경북 걷기 실천율·안전벨트 착용률 낮아	"
11	뉴시스	경북지역 30대이상 흡연율 여전히 높아	"
12	뉴스원	경북 30대, 흡연율 높고 걷기실천율 낮아	"
13	국제i저널	우리지역 건강수준 어디까지 왔을까	"
14	아시아뉴스통신	경북지역 흡연인구 20대감소 30대증가	"
15	수도권일보	2013 경상북도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	"
16	아시아일보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

경북, 건강한 삶의 질 높이기 '앞장'

지역사회통계 활용 건강문제 파악 · 지역간 생산적 경쟁 유도

【대구=신영길 기자】경북도는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이번 발표한 건강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2,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 지난 9월 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 5개 분류, 33개 지표에 근거해 실시했다.

'지난해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결과에서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

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또,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는 유지·개선돼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흡연율은 경북이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고, 성별에서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며 최근 5년간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돼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아,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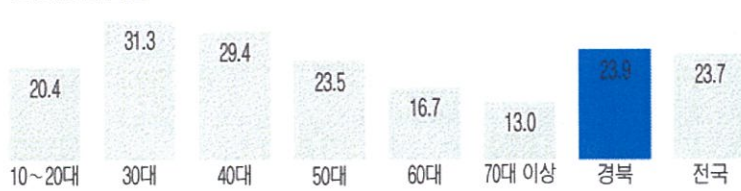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는 이번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경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인사를 활용한 '텔레이, 지역주민 건강강좌 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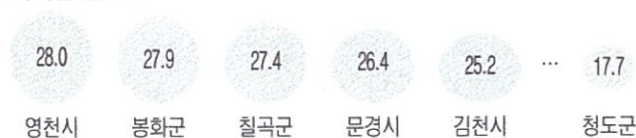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해 주요건강문제 파악과 지역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3년 6월부터 5개월간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천321명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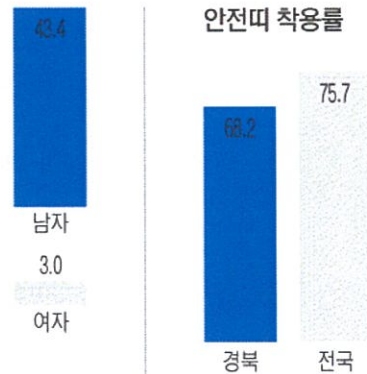
연령별 흡연율



지역별 흡연율



안전띠 착용률



경북도 남자 10명 중 4명 흡연

경북도민 남자 10명 중 4명이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한 걷기와 교통사고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북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북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만2천32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경북지역의 흡연율은 23.9%였다. 전국 평균은 23.7%. 남자 43.4%, 여자가 3%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남자가 56.9%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대가 54%로 뒤를 이었다. 여자는 70대 이상이 4.6%로 가장 높았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은 공공장소가 83.9%로 가장 높았고, 직장 내 23.6%, 가정 내 9.6%였다.

시·군별로는 영천시가 28%로 가장 높았고, 봉화군(27.9%), 칠곡군(27.4%), 문경시(26.4%), 김천시(25.2%) 등의 순이었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만19세 이상 건강조사 결과
30대 男 흡연율 56.9% 최고
영천시 최고, 청도군 최저

걷기 실천·안전띠 착용률
전국 평균 크게 밑돌아

곳은 청도군(17.7%)이었다.

고위험 음주율(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은 18.3%로, 전국 평균(17.5%)보다 높았다. 특히 40~50대가 각각 25.1%와 22.4%로 비교적 높았다.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은 여자는 만 25.7세였으나, 남자는 19.2세였다.

반면,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걷기 실천율(하루 30분 이상·주 5일 이상 걸은 사람의 비율)은 32.1%로 전국 평균(40.2%)보다 크게 낮았다. 30~40대가 각각 27.6%와 29.5%로 저조했다.

안전의식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운전 시 차량 안전띠 착용률이 68.2%로 전국 평균(75.7%)보다 낮았다. 앞좌석 동승자도 전국 평균(73.3%)를 크게 밑도는 66.4%에 불과했다.

경북도는 △걷기 실천율 △안전띠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도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했다.

이에 반해 △월간 음주율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유지 또는 개선되고 있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건강새마을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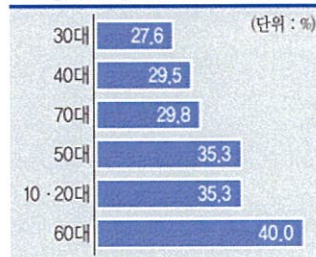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지역사회 건강조사...경북도민 "걷기 싫어해"

30대 흡연율 높고 걷기 실천율 낮아

월간 음주율·스트레스
최근 5년간 양호한 수준
안전벨트 착용률 68%
단속강화 인식개선 필요

경북 연령대별 걷기 실천율



경북도민의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 40.2%에 비해 8.1%포인트 낮은 32.1%로 파악됐다. 또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률은 68.2%로 전국평균 75.7%에 비해 7.5%포인트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걷기 실천율은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의 걷기를 실천한 경우를 말한다.

걷기운동 실천은 30대가 27.6%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40대 29.5%였다. 지역별로는 시(市) 지역 걷기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착용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았다.

특히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과 규제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월간 음주율, 스트레스 인 지출, 우울감 경험률 등은 최근 5년간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흡연율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

포를 보였다.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돼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경북도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도내 23개 시군 만19세 이상 성인 2만2천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는 건강행태, 예방접종,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 5가지 분류와 33개 지표에 근거해 실시됐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건강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라며 "주민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과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해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의를사를 통한 '텔레이 지역주민 건강강좌',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30대 이상 흡연율, 여전히 높다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국평균보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건강조사 결과발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만 2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 올해 9월 5개 분류(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33개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결과를 종합한 경상북도 건강통계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팀)에서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이와 전국 시도 간의 비

교는 물론, 도내 지역 간의 건강문제를 함께 분석 제시했다.

'2013년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결과를 보면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또한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개선돼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흡연율에서 경북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으며 성별에서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 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했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돼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이상 주 5일 이상 걷기 실천)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아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 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안전의식과 관련이 있는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 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

았다.

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및 규제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 위한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 의사를 활용한 '릴레이 지역주민 건강강화 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익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봉현기자

30·40대 경북도민, 건강에 가장 무심

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3, 40대가 건강에 가장 무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5일 밝힌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민들의 흡연율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으며, 남자가 43.4%, 여자는 3.0%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졌다. 최근 5년간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 40대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 실천)의 경우 경북은 32.1%로 전국 40.2%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30대(27.6%), 40대(29.5%),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았다.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도 68.2%로 전국(75.7%)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 경북도민들의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등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건강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천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 올해 9월 5개 분류(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33개 지표를 통계로 만들어 이번 발표한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류상현 기자

경북도민일보

2014년 10월 06일 월요일 005면 지역종합

경북 '걷기 실천율·안전벨트 착용률' 낮아

지난해 경북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전국 평균 밑돌아

경북도민의 걷기 실천율과 차량 안전벨트 착용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걷기 실천율, 차량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최근 5년간 계속 줄어 들었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북도내 23개 시·군 19세 이상 성인 2만 23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 이상·주 5일 이상 걷기 실천)은 경북이 32.1%로

전국 평균 40.2%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30대 걷기 실천율은 27.6%, 40대는 29.5%에 불과했다.

차량 안전벨트 착용률도 경북은 68.2%로 전국 75.7%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안전벨트 착용률이 저조했다"며 "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민의 월간 음주율,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다른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 분석결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23.9%(전국 평균 23.7%)며 남자 43.4%, 여자 3%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했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고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새마을 조성, 릴레이 건강강좌,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우리지역 건강수준, 어디까지 왔을까?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수준 인지율 5년간 ↓

경북도는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건강조사 결과발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만 2천 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 올 9월 5개 분류(건강행태·예방접종·이환 및 의료이용·사고 및 중독·삶의 질) 3개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결과를 종합한 경북도 건강통계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팀)에서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이와 전국 시·도 간의 비교는 물론, 도내 지역 간의 건강문제도 함께 분석 제시했다.

'2013년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결과를 보면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또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를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개선돼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흡연율에서 경북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으며, 성별에서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했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돼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이상, 주 5일이상 걷기 실천)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아,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안전의식과 관련이 있는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았다.

도는 이번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시·군의 사회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텔레이 지역주민 건강강화 실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확충 운영' 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ass1920@naver.com

경북지역 30대 이상 흡연율 여전히 높아

전국 평균과 비슷... 20대 다소 감소추세

경북 지역 현재 흡연율이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다.

도내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돼 이들을 위한 금연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5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는 지난해 6~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321명을 대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5개 분류(건강행태·예방접종·이환 및 의료이용·사고 및 중독·삶의 질), 33개 지표에 근거해 이번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결과를 종합한 경북도 건강통계는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

팀)에서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이와 전국 시도 간의 비교는 물론, 도내 지역 간의 건강문제도 함께 분석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2013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결과를 보면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아울러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개선돼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걷기 실천율(1일 30분이상, 주 5일이상 걷기 실천)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았다.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았다.

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및 규제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도를 제작·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인사를 활용한 '릴레이 지역주민 건강강좌 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등 다양한 중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박의식 보건복지국장은 "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해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경북 '걷기 실천율·안전벨트 착용률' 낮아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민의 걷기 실천율과 차량 안전벨트 착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걷기 실천율, 차량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최근 5년간 계속 줄어 들었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북도내 23개 시·군 19세 이상 성인 2만 2천3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 이상·주 5일 이상 걷기 실천)은 경북이 32.1%로 전국 평균 40.2%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30대 걷기 실천율은 27.6%, 40대는 29.5%에 불과했다.

차량 안전벨트 착용률도 경북은 68.2%로 전국 75.7%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안전벨트 착용률이 저조했다"며 "주로 해안 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민의 월간 음주율,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다른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 분석결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23.9%(전국 평균 23.7%)며 남자 43.4%, 여자 3%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했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고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새마을 조성, 릴레이 건강강좌,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haru@yna.co.kr

경북지역 30대 이상 흡연율 여전히 높아

【경북=뉴스시스】최창현 기자 = 경북 지역 현재 흡연율이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다.

도내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돼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5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는 지난해 6~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321명을 대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5개 분류(건강행태·예방접종·이환 및 의료이용·사고 및 중독·삶의 질), 33개 지표에 근거해 이번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결과를 종합한 경북도 건강통계는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팀)에서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이와 전국 시도 간의 비교는 물론, 도내 지역 간의 건강문제도 함께 분석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2013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결과를 보면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아울러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개선돼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걷기 실천율(1일 30분이상, 주 5일이상 걷기 실천)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았다.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았다.

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및 규제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릴레이 지역주민 건강강좌 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등 다양한 중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박의식 보건복지국장은 "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해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c@newsis.com

경북 30대, 흡연율 높고 걷기 실천율 낮아...건강조사 결과

(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4.10.05 10:26:46 송고

기사보기네트즌의견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확대축소경북지역에 사는 30대가 흡연율은 높고, 운동 실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북도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흡연율이 23.9%(남자 43.3%, 여자 3.0%)로 전국평균(23.7%)과 비슷하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다.

최근 5년 간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걷기 실천율(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은 30대 27.6%, 40대는 29.5%로 경북 전체 평균(32.1%)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市) 지역에 사는 30~40대 직장인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건강조사는 지난해 6~10월 경북 23개 시·군의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이 최근 5년 간 추이 등을 분석한 것이다.

leajc@naver.com

International Internet Journal

지역사회의 세계화 국제저널

<http://www.iiij.co.kr>

프린트하기

우리지역 건강수준 어디까지 왔을까

2013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보고

뉴스일자: 2014년10월05일 21시23분
여흥기자

[국제저널=경북 여흥기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건강조사 결과발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2,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 올해 9월 5개 분류(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33개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결과를 종합한 경상북도 건강통계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팀)에서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이와 전국 시도 간의 비교는 물론, 도내 지역 간의 건강문제도 함께 분석 제시했다.

'2013년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결과를 보면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또한,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개선되어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흡연율에서 경북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으며, 성별에서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이상, 주 5일이상 걷기 실천)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아,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안전의식과 관련이 있는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았다.

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및 규제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릴레이 지역주민 건강강좌 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ijj.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창닫기



경북지역 흡연인구 20대 감소 30대 증가 추세

해안지역 주민 안전벨트 착용률 낮아...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뉴스일자: 2014년10월05일 12시41분

최근 5년간 경북지역 20대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북도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강조사 결과발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 지난달 5개 분류, 33개 지표를 기준으로 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또한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 개선돼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흡연율에서 경북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고 성별에서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은 경북은 32.1%, 전국 40.2%로 나타났고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아 시 지역 직장인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 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안전의식과 관련이 있는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이 68.2%로 전국 75.7%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았다.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해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1@hotmail.co.kr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참달기

2013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보고

2014. 10.06(월) 09:03

가+가-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건강조사 결과발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2,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 올해 9월 5개 분류(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 이용,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33개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결과를 종합한 경상북도 건강통계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팀)에서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이와 전국 시도 간의 비교는 물론, 도내 지역 간의 건강문제도 함께 분석 제시했다.

'2013년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주요결과를 보면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또한,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개선되어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흡연율에서 경북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으며, 성별에서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이상, 주 5일이상 걷기 실천)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아,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안전의식과 관련이 있는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았다.

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및 규제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릴레이 지역주민 건강강좌 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규 기자 ycngo@sudokwon.com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수도권일보[sudokwon.com] 홈페이지(<http://www.sudokwo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sudokwon.com

<http://www.asiailbo.co.kr>

2014-10-06 19:04:39 (월)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국평균보다 낮아

경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30대 흡연율 가장 높아

기사입력(2014-10-05 16:20)

[아시아일보/남형기 기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건강조사 결과발표는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22,321명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 지난 9월 5개 분류(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33개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결과를 종합한 경상북도 건강통계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팀)에서 최근 5년간(2009~2013년) 추이와 전국 시도 간의 비교는 물론, 도내 지역 간의 건강문제도 함께 분석 제시했다.

'2013년 경상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주요결과를 보면 걷기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고혈압·당뇨병·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 사고 중독 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선 개선해야 할 주요건강문제 지표로 선정됐다.

또한, 월간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스트레스 인지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타 시도 비교 및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지·개선되어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흡연율에서 경북은 23.9%로 전국평균 23.7%와 비슷했으며, 성별에서 남자 43.4%, 여자 3.0%, 연령별로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20대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30대 이상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 이들을 위한 금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율(1일 30분이상, 주 5일이상 걷기 실천)에서 경북은 32.1%, 전국 40.2%였으며, 30대(27.6%), 40대(29.5%)가 낮고 주로 시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낮아, 시 지역 직장인(30~40대)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걷기 캠페인과 함께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안전의식과 관련이 있는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경북 68.2%로 전국(75.7%)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전 시 및 동승차량 앞좌석 착석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았다.

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및 규제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읍면동별 건강지도를 제작·공개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정착, 심뇌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시·군 의사회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릴레이 지역주민 건강강좌 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은“현실성 있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의 저작권은 [뉴아시아일보]에 있습니다.

[프린트] [닫기]